

## 勤勞環境과 女性勤勞者의 健康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Women's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韓 喜 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研究結果 및 考察 |
| II. 研究 目的 | V. 總括 및 結論    |
| III. 研究方法 |               |

#### I. 序 論

勤勞者의 健康은 一般的으로 作業條件 및 作業環境에 影響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作業姿勢, 作業方法, 作業時間 등을 포함한 作業條件, 作業環境 그리고 평소의 保健管理에 따라 疾病, 負傷, 健康障礙 또는 作業에의 不適應을 일으키는 要因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또는 제거하려는 策劃활동 및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物理·化學·生物學的 要素에 기초한 有害物質의 基準設定이나 제거 그리고 勤勞者의 疾病에 대한 治療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적인 次元에서 個人 또는 集團健康管理에 대한 保健教育的인 活動이 더욱 중요하다.

勤勞者의 健康問題는 그 발생 또한 다양한데 一次的으로 職種, 作業滿足度, 作業條件 그리고 保健管理의 影響을 받으므로 이들의 개선을 통한 健康유지 및 疾病예방이 필요하다. 勤勞者의 健康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는 作業環境·勤勞條件, 勤勞過程, 作業內容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그의 勤勞者의 社會·經濟的 狀態에서 오는 間接적인 影響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勤

勞者의 健康 증진의 영역을 職業病이나 産業災害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런 社會·經濟的 諸要素의 개선 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年代 産業化 促進以後 전체 勤勞者數의 증가와 함께 女性勤勞者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6年 現在 經濟活動人口中 女子의 비율은 39.1%로 1975年의 36.1%에서 약 3%포인트가 증가하였고<sup>1)</sup> 전체 勤勞者의 39.8%가 女性勤勞者로 이는 1985年보다 5.5%가 증가한 것이다. 女性勤勞者의 빠른 증가추세와 더불어 女性의 경우 勤勞가 健康에 부정적 影響을 미친다는 것<sup>2)</sup>을 고려 때 이들이 健康에 대한 관심이 必要하게 되었다.

最近女性勤勞者들의 就業構造를 보면 「農林漁業」이 26.2%, 「生産關聯職」 22.7%, 「販賣職」 16.6%, 「事務職」 10.7%, 「專門職」이 5.9%로 나타났다<sup>3)</sup>. 이들 勤勞女性中에서 특히 健康側面에서 볼때 農業從事者를 포함한 육체노동자들이 다른 女性勤勞者들에 비해 健康狀態가 나쁜 것을 볼때 一部 職種 女性勤勞者들의 健康問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女性勤勞者의 특수한 健康上的 問題는 男性과

비교하여 우선 생리·해부의 構造的인 차이에 있다. 이는 곧 女性 特有的 健康管理을 요구하는 월경·임신·출산 그리고 산전·산후 모성보호 등의 問題이다. 最近의 調查보고에 의하면 女性 勤勞者 가운데 19.3%가 貧血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또 임신중의 과도한 作業이 태아사망율을 높이고<sup>5)</sup> 평균수태율이 非勤勞女性보다 낮은 것을 생각할때<sup>7)</sup> 女性勤勞者의 健康管理은 個人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2세의 健康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측면에서의 女性勤勞者의 健康問題로서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家事·育兒 등의 육체 및 심리적 이중부담<sup>8)</sup>을 갖게되어 健康의 問題가 제기 될 수 있으며 반대로 社會활동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心理的 부담감을 느끼는 문제로서도 나타나고<sup>9)</sup> 있다. 그러므로 女性勤勞者의 경우 母性保護側面에서 正當한 健康管理은 問題視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法制度的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勤勞基準法에 명시된 산전·산후 휴가, 생리 휴가, 육아휴직은 최소한 規定대로 實施되어져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女性勤勞者의 대부분이 미숙련·단순노동 그리고 나쁜 근로환경과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sup>10)</sup> 이들의 勤勞環境에 따른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를 究明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勤勞者의 健康管理에는 소홀리한 점을 감안하면 이 分野의 研究는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研究 目的

本研究의 一般的인 目的은 女性勤勞者들의 勤勞環境이 健康狀態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的을 設定하였다.

첫째, 職種에 따라 女性勤勞者들의 健康狀態를 살펴보고

둘째, 이들 勤勞者들의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狀態를 파악하며

셋째, 作業條件에 따라 健康狀態를 알아보고 넷째, 作業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를 살펴봄

다섯째, 保健管理實態에 따라 女性勤勞者들의 健康狀態 파악한다.

## III. 研究 方法

### 1. 調查對象의 選定 및 調查方法

本研究는 1987年 10월에 조사한 「조직여성근로자의 실태조사 보고서」資料를 分析한 것으로 調查對象 및 調查方法은 다음과 같다.

#### 가. 調查對象選定

全國의 조직여성근로자를 母集團으로 하여 20개 產業別 산하 業種 중 女性勤勞者들이 속한 16개를 조합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중 女性勤勞者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조합은 제외하고 13個 조합을 中心으로 調查하였으며 그외에 일부 응답한 조합원은 其他로 처리하여 總 14개 業種의 조합원 7,091名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 나. 調查方法

1987年 10月과 11월에 걸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여성국과 각 產業別 여성부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노총산하 시·도 협의회의 協助를 얻어, 단위조합을 직접방문하여 女性勤勞者를 일 정장소에 집합시켜 이들에게 調查目的과 調查의 重要性을 說明하고 자기판단에 의해 기입하도록 하는 方式과 調查員이 直接 面談하는 面接方式을 병행하였다. 調查道具는 과거 1978年 조직여성근로실태조사<sup>11)</sup>와 1983年 同調查時<sup>12)</sup>에 사용했던 說門內容을 수정하여 설계된 것을 사용하였다.

### 2. 調查內容

#### 가. 從屬變數

本研究의 目的이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와 勤勞環境과의 關係를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從屬變數는 女性勤勞者들이 呼訴한 症狀 및 疾

병으로 하였다. 女性勤勞者들이 주로 呼訴하는 症狀 및 疾病은 24가지였다. 本 研究資料를 蒐集할 때 알고자 원했던 症狀 및 疾病은 醫療人에 의한 客觀성을 가진 診斷 結果가 아니고 勤勞者 自身이 呼訴한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內容과 範圍가 방대하며 또한 各 症狀 및 疾病을 客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同一系統의 疾病이나 症狀은 통합시켜 타당성의 범위를 넓게 하였다. 一般的으로 健康狀態의 측정에는 사망율과 이환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勤勞者는 傷病에 의한 缺席日數를 적용하

나<sup>13)</sup> 本研究에서는 呼訴症狀 및 疾病을 調査하였으므로 이를 健康狀態를 나타내는 指標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整理作業이 要求되었다. 그러므로 24個의 疾病 및 症狀을 疾病의 深刻性에 따라 客觀적으로 分類하였다.

심각도의 구분은 保健분야의 專門家로 생각되는 保健大學院의 教授들과 博士過程學生들에 의뢰하여 24個 症狀 및 疾病을 深刻性 순서로 나열하게 하고 그 結果를 研究者가 다시 4個集團으로 再分類하였다. <表 1參照>

<表 1> 症狀 및 疾病分類에 의한 類度

分類 I		分類 II		分類 III		分類 IV	
內容	N	內容	N	內容	N	內容	N
번비	2,130	치질	440	동상	570	방광염	128
두통	1,949	빈혈	1,513	위장병	2,019	신장염	129
무좀	1,764	다리붓증	1,405	측농증	195	폐결핵	80
피부병	449	신경통	630	기관지염	513	신경쇠약	466
식욕감퇴	358	월경분순	594	청각감퇴	392	호흡곤란	141
눈병	691	냉이많다	684	호흡기질환	309	척추디스크	196
計	7,436	計	5,289	計	4,009	計	1,191

$$\text{症狀 및 疾病指數} = \sum(\text{症狀 및 疾病分類값}(1\sim4)) \times \text{個人別 呼訴症狀數}(N_1 \sim N_6)$$

여기서 分類된 4가지는 첫째 分類 I로서 이는 症狀 및 疾病이 아주 경미한 것을 의미하며, 둘째 分類 II는 보통의 症狀 및 疾病을, 셋째 分類 III은 深刻한 症狀 및 疾病을, 그리고 넷째 分類 IV는 아주 深刻한 症狀 및 疾病임을 의미한다.

調査時 症狀 및 疾病을 최대한 6個까지 고를 수 있게 하였으므로 症狀 및 疾病 呼訴數의 分布는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勤勞者부터 6個呼訴한 勤勞者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개를 고른 女性勤勞者의 경우 深刻度가 서로 다른 集團에 속한 症狀 및 疾病을 고르는 現象이 나타나 여기서 類度の 의미가 반드시 多發生症狀 및 疾病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 分類~IV 分類까지 各 分類의 深刻度에 따라 I 分類에는 '1점'을 배점하고 II 分類에는 '2점'을, III 分類에는 '3점'을 그리고 IV 分類에는 '4점'의 값

을 주고 이에 調査對象者가 고른 個人別 呼訴數를 곱해주어 指數化하여 再分類하였다.

症狀 및 疾病指數 1~6점까지는 '指數 I 集團'으로, 症狀 및 疾病指數 7~12점까지는 '指數 II 集團'으로 症狀 및 疾病指數 13점 이상은 '指數 III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指數 I 集團은 비교적 경미한 健康問題의 集團으로써 II·III 集團에 비해 健康狀態가 좋음을 의미하며 指數 II 集團은 중등도의 健康問題를 지닌 勤勞者들로 I 과 III 의 중간정도의 健康狀態를 의미하고 指數 III 集團은 비교적 심각한 健康問題를 가진 集團으로 I 과 II에 비해 나쁜 健康狀態를 가진 勤勞者들의 集團임을 의미한다.

#### 나. 獨立變數

本研究에서 사용된 獨立變數는 (1) 女性勤勞者의 一般의 特性, (2) 職種, (3) 作業條件, (4)

作業満足度, (5) 保健管理實態를 나타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女性勤勞者의 一般의 特性:

다음의 變數들이 포함된다.

- 年齡
- 就業年齡

최초로 勤勞하기 시작한 年齡을 의미한다.

- 結婚狀態
- 子女數
- 學歷
- 就業理由
- 性差別有無

男性勤勞者와 비교해서 女性勤勞者 自身이 느끼는 待遇이다.

- 勤勞年數

현재의 職場에 勤務한 年數를 의미한다.

(2) 職種:

本研究는 母集團을 全國의 女性勤勞者로 하였으므로 調査對象者들의 勤勞環境 및 一般의 特性을 반영할 수 있는 變數로 職種을 택하였다. 이는 職業을 구분하는 基準인 職種과 業種 중 職務에 의한 구분이다.

(3) 作業條件:

다음의 變數들이 포함된다.

- 1日勤勞時間

- 賃金水準

總受領額을 測定하였다.

- 夜間作業 有無

- 休日與否

한달 중 쉬는 적이 있는가 알아보았다.

- 作業姿勢

(4) 作業満足度

女性勤勞者 自身の 作業에 대한 心理的 狀態로 Likert의 3等間度로서 不滿足· 보통· 滿足으로 점수화하였다.

- 作業時間에 대한 満足度

- 基本給料에 대한 満足度

- 總受領額에 대한 満足度

基本給料에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합친 금액에 대한 心理的 満足狀態를 의미한다.

- 監督者에 대한 満足度

- 作業環境에 대한 満足度

- 作業満足指數

위의 作業時間, 總受領額, 監督者, 基本給料, 作業環境의 5개 變數의 不滿足, 보통, 滿足 점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作業에 대한 満足도를 살펴 본 것으로 5~8점까지를 満足指數 I로 하여 不滿足을 의미하는 集團으로 分類하고 9~11점까지를 満足指數 II로 하여 보통을 의미하는 集團으로 그리고 12~15점까지를 満足指數 III으로 하여 滿足을 의미하는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5) 保健管理實態

다음의 變數들이 포함된다.

- 健康診斷有無

- 福祉厚生施設

목욕탕·기숙사 施設 등에 대해 女性勤勞者들이 느끼는 設置 程度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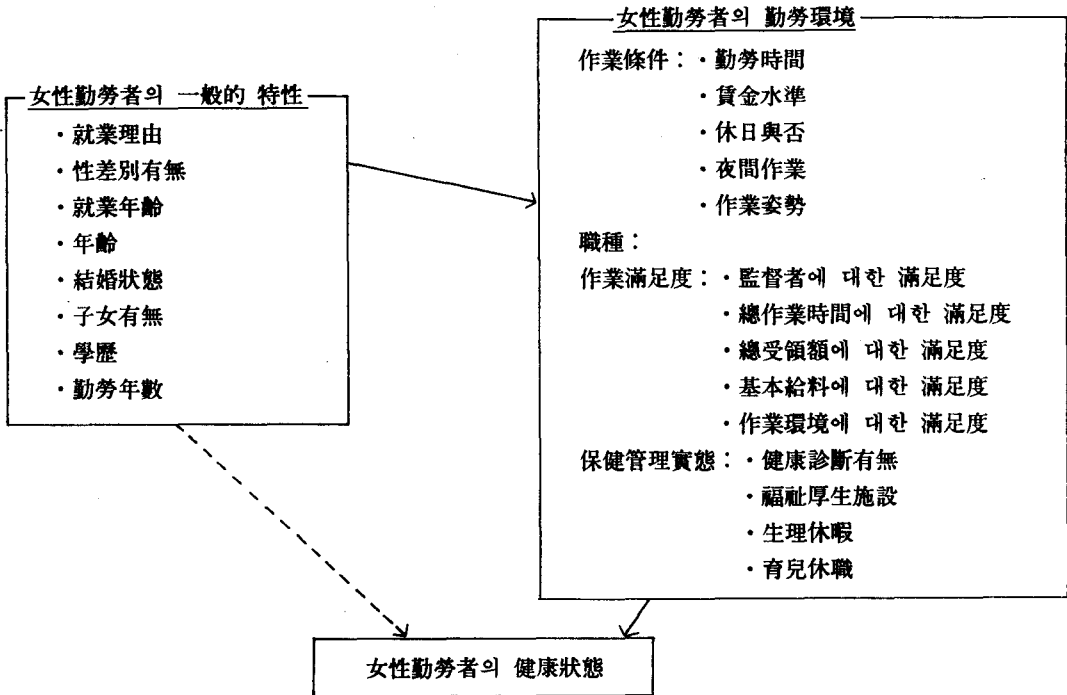
- 生理休暇有無

- 幼兒休職制有無

3. 分析 方法

가. 分析 模型

本研究의 分析模型은 圖 1과 같다.



〈圖1〉 研究分析 模型

#### 나. 資料 分析

資料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各 獨立變數別 呼訴症狀 및 疾病의 分布를 보고  $\chi^2$  檢査를 통해 이들의 獨立性을 檢定하였으며 이를 통해 勤勞環境이 健康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다.

### IV. 研究結果 및 考察

#### 1. 女性勤勞者の 一般的 特性

女性勤勞者の 年齡, 就業年齡, 結婚狀態를 살펴보면 表2와 같다. 年齡分布를 보면 全體의 51.7%가 20~24歲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歲로 17.4%이고 특히 成長, 教育保障의 側面에서 重要性이 강조되고<sup>14)</sup> 있는 19歲이하의 靑少年 勤勞者는 15.1%로 나타났다. 職種別 年齡分布를 보면 專門技術 및 關聯職은 20~24歲가 48.7%로 가장 많았고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25~29歲가 43.2%로 가장 많았다.

販賣 및 서비스職은 20~24歲가 41.6%로 가장 높은 分布를 나타내고 生産 및 技能職 그리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 역시 20~24歲가 가장 높은 分布로 各各 59.1%, 44.0%를 나타냈다. 또한 19歲이하의 年少勤勞의 경우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 20.0%로 他職種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全體의으로 보아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과 販賣 및 서비스職이 비교적 年齡이 높았다.

就業年齡을 살펴보면 19歲 未滿인 경우가 全體의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24歲로 34.1%였다. 職種別 就業年齡을 보면 專門技術 및 關聯職은 19歲이하 就業이 60.5%로 가장 많았고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 역시 19歲이하 就業이 54.5%로 가장 많았으나 20~24歲 就業도 4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販賣 및 서비스職은 20~24歲가 가장 높은 分布로 49.9%를 나타냈으며 生産 및 機能職과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19歲이하의 分布가 가장 높아 各各 66.3%, 55.1%를 나타냈다. 就業年齡은 現年齡構造와 연관이 있어 年少勤勞者가 많은

<表 2> 職種別 一般的 特性(1)

	専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및 事務職		管理/ 關聯職		販賣 및 / 生 産 및 技 能 職		單純製造 및 勤務職		其 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年齢*</b>														
19歲이하	13	15.5	26	3.6	87	10.0	617	18.6	112	20.0	177	14.0	1,032	15.1
20~24歲	41	48.7	245	33.8	362	41.6	1,962	59.1	246	44.0	670	53.1	3,526	51.8
25~29歲	22	26.2	312	43.2	196	22.5	373	11.2	55	9.8	231	18.3	1,189	17.4
30~34歲	5	6.0	99	13.7	112	12.8	119	3.6	28	5.0	80	6.3	443	6.5
35~39歲	2	2.4	28	3.9	69	7.9	108	3.3	34	6.1	39	3.1	280	4.1
40~44歲	0	-	8	1.1	29	3.3	60	1.8	32	5.8	26	2.1	155	2.3
45~49歲	1	1.2	5	0.7	12	1.4	63	1.9	33	5.9	22	1.8	136	2.0
50歲이상	0	-	0	-	4	0.5	16	0.5	19	3.4	16	1.3	55	0.8
<b>就業年齢*</b>														
19歲 이하	49	60.5	398	54.5	409	46.2	2,212	66.3	310	55.1	741	58.3	4,119	60.0
20~24歲	29	35.8	322	44.1	443	49.9	931	27.9	170	30.2	444	35.0	2,339	34.1
25~29歲	2	2.5	5	0.8	18	2.0	36	1.1	16	2.8	20	1.6	97	1.4
30~34歲	0	-	3	0.4	7	0.8	76	2.3	24	4.3	23	1.8	133	1.9
35~39歲	1	1.2	1	0.1	8	0.9	58	1.7	28	5.0	28	2.2	124	1.8
40~44歲	0	-	1	0.1	2	0.2	16	0.5	8	1.4	12	0.9	39	0.6
45~49歲	0	-	0	-	0	-	8	0.2	4	0.7	2	0.2	14	0.2
50歲 이상	0	-	0	-	0	-	0	-	3	0.5	0	-	3	0.0
<b>結婚狀態*</b>														
未婚	38	74.5	486	66.3	556	63.1	2,915	86.3	418	73.7	1,015	80.4	5,428	79.0
既婚	13	25.5	247	33.7	325	36.9	462	13.7	149	26.3	247	19.6	1,443	21.0
<b>(子女數*)</b>														
0	(5)	(38.5)	(64)	(26.2)	(54)	(15.8)	(117)	(23.0)	(13)	(8.0)	(105)	(31.6)	(358)	(22.4)
1	(2)	(15.4)	(118)	(48.4)	(108)	(31.7)	(75)	(14.8)	(28)	(17.2)	(76)	(22.9)	(407)	(25.4)
2	(5)	(38.5)	(48)	(19.7)	(135)	(39.6)	(169)	(33.3)	(46)	(28.2)	(80)	(24.1)	(483)	(30.2)
3	(0)	(-)	(9)	(3.7)	(37)	(10.8)	(97)	(19.1)	(37)	(22.7)	(45)	(13.6)	(225)	(14.0)
4이상	(1)	(7.6)	(5)	(2.0)	(7)	(2.1)	(50)	(9.8)	(39)	(23.9)	(26)	(7.8)	(128)	(8.0)
小計	(13)	(100.0)	(244)	(100.0)	(341)	(100.0)	(508)	(100.0)	(163)	(100.0)	(332)	(100.0)	(1,601)	(100.0)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0

\* 無應答 除外

生産 및 機能職과 單純製造 및 勤務職은 年少就業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狀態를 살펴보면 全體의 79.0%가 未婚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既婚女性의 社會參與가 增加될 것으로 推계되고<sup>15)</sup> 있다. 専門技術 및 關聯職은 74.5%가 未婚이었고 生産 및 機能職은

86.3%, 單純製造 및 勤務職은 73.7%를 보이고 있다.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과 販賣 및 서비스職은 既婚의 分布가 비교적 높아 各各 33.7%와 36.9%였는데 이들은 年齡이 높은 分布를 나타낸 職種들로 年齡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子女數에 관한 質問에 應答한 總數는 1,601名으로 이는 既婚이라 應答한 1,443名 보다 많다. 이것은 아마 結婚狀態에 관한 質問에 無應答으로 처리된 對象者가 子女數에 關하여는 應答을 하여 비릇된 차이로 생각된다. 2子女를 둔 女性勤勞者가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子女로 25.4%이다. 그리고 無子女인 경우도 22.4%가 된다.

職種別 子女數 分布를 보면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無子女와 2子女를 둔 경우가 각각 38.

5%로 가장 많았고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은 1子女인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다. 販賣 및 서비스職과 生産 및 技能職 그리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2子女가 가장 높은 分布를 보여 각각 39.6%, 33.3%, 28.2%를 보였다. 즉,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과 販賣 및 서비스職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既婚인 경우가 많았으나 子女數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勤勞者의 學歷, 性差別 有無와 就業理由를 살펴보면 表3과 같다.

<表 3> 職種別 一般的 特性 (2)

	專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및 管理/ 事務 및 關聯職		販賣 및 서비스職		生産 및 技能職		單純製造 및 勞務職		其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學歷*</b>														
無學	4	4.6	1	0.1	2	0.2	17	0.5	10	1.8	12	0.9	46	0.7
國民學校	1	1.2	2	0.3	9	1.0	178	5.3	68	12.1	57	4.5	315	4.6
中學校	9	10.3	22	3.0	86	9.7	900	26.9	145	25.7	304	23.9	1,466	21.3
高等學校	52	59.8	546	74.8	708	79.7	2,212	66.0	338	59.8	845	66.4	4,701	68.2
專門大	13	14.9	45	6.2	39	4.4	20	0.6	1	0.2	24	1.9	142	2.0
大學校 以上	8	9.2	114	15.6	44	5.0	24	0.7	2	0.4	31	2.4	223	3.2
<b>性差別*</b>														
差別있다	50	60.2	542	75.1	470	54.8	1,804	54.5	307	54.2	706	55.7	3,879	57.0
잘모르겠다	10	12.0	40	5.5	102	11.9	563	17.0	96	16.9	217	17.1	1,028	15.1
同等하다	23	27.8	140	19.4	286	33.3	942	28.5	164	28.9	344	27.2	1,899	27.9
<b>就業理由*</b>														
자신의 경제적 자립	60	71.3	554	79.1	639	73.8	2,355	70.3	375	66.3	952	73.7	4,935	72.0
부모·형제·자매 돕기 위해	14	16.7	76	10.9	109	12.6	521	15.6	73	12.9	174	13.5	967	14.1
남편·자녀생활 유지	4	4.8	30	4.3	75	8.7	279	8.3	84	14.8	91	7.0	563	8.2
용돈을 벌기 위해	2	2.4	12	1.7	22	2.5	114	3.4	18	3.2	42	3.3	210	3.0
기타	4	4.8	28	4.0	21	2.4	80	2.4	16	2.8	33	2.5	182	2.7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0

\* 無應答 除外

女性勤勞者의 健康은 勤勞條件보다도 社會·經濟的 條件 특히, 就業年齡 및 教育程度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sup>10)</sup> 지적에 따라 學

歷을 살펴보았다. 全體의 68.2%가 高等學校程度의 學歷으로 가장 높은 分布를 나타냈고 다음은 中學校程度의 學歷으로 21.3%이고 專門大

또는 大學校程度의 學歷은 各各 2.1%, 3.2%였다. 職種別로 學歷分布를 보면 高等學校程度의 學歷이 가장 높은 分布를 보였으나 특히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 79.7%로 가장 높았다. 中學校程度의 學歷을 가진 勤勞者는 生産 및 技能職과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 各各 26.9%, 25.7%로 비교적 높은 分布를 차지했다. 또한 專門大程度의 學歷은 專門技術 및 關聯職이 14.9%로 가장 많은 分布를 나타냈고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大學校程度의 學歷을 지닌 勤勞者가 15.6%로 他職種에 비해 높은 分布를 보여 專門技術 및 關聯職과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 勤勞者의 學歷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職場生活에서 男性과 비교하여 性差別이 있다고 느끼는 女性勤勞者가 全體의 57.0%로 가장 많았고 동등한 待遇를 받는다고 느끼는 勤勞者는 27.9%였다. 職種別로는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差別待遇를 받는다고 느끼는 分布가 75.1%로 가장 높았고 專門技術 및 關聯職도 60.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販賣 및 서비스職은 33.3%가 동등한 待遇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生産 및 技能職은 28.5%,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28.9%로 이들 職種에서는 비교적 많은 勤勞者가 性差別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就業理由를 보면 全體의 72.0%가 「自身の 經濟的 自立을 위해서」라고 應答하였고 다음은 「부모·형제·자매를 돕기 위해서」로 14.1%였다.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自身の 自立을 위해」 일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아 79.1%를 차지하였고 專門技術 및 關聯職은 「부모·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16.7%로 가장 높은 分布였다. 또한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남편·자녀생활유지를 위해」 일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아 14.8%를 나타내고 있었다.

## 2. 勤勞環境 特性

### 가. 作業條件

職種別 1日 勤勞時間, 夜間作業與否, 休日有無, 作業姿勢는 表4와 같다.

1日 勤勞時間에의 規定은 1919年 第1回 國際勞

動憲章에서 1日 8時間, 週 48時間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勤勞基準法 第42條에 「勤勞時間은 休息時間을 除하고 1日 8時間, 1週日에 48時間을 基準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本研究 結果에서 실제 1日 勤勞時間을 보면 8時間 일하는 勤勞者가 全體의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9~10時間 勤勞하는 근로자는 가장 많아 40.2%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1~12時間을 勤勞하는 경우도 22.1%나 된다. 즉 과반수가 훨씬 넘는 勤勞者들이 規定時間外의 勤勞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技術 및 關聯職은 8時間 勤勞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아 42.2%를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職種은 9~10時間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55.5%로 가장 높았다. 또한 11~12時間 勤勞하는 勤勞者는 生産 및 技能職에서 24.6%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였고 販賣 및 서비스職은 13時間以上 일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은 12.6%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長時間 勤勞하는 職種은 販賣 및 서비스職, 生産 및 技能職 그리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임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世界各國은 女性의 深夜業 禁止를 勞動保護立法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勤勞基準法 第56條에 「女子와 18歲 未滿者는 下午 10時에서 上午 8時 사이에 勤務시키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本調査에서는 57.1%의 女性勤勞者만이 夜間作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夜間作業을 하고 있는 勤勞者가운데 20.9%는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職種에 따른 차이를 보면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이 夜間에 勤務하지 않는 勤勞者가 가장 많아 81.4%를 차지하였고 專門技術 및 關聯職도 70.2%의 높은 分布를 나타냈다. 反面에 販賣 및 서비스職은 夜間勤務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한 勤勞者는 30.6%,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3%로 나타났다. 單純製造 및 勤勞職도 비교적 높은데 자주 있다는 경우가 28.3%, 가끔 있다는 경우가 22.4%였다. 이는 1日 勤勞時間과 關聯이 있어 規定時間에 가까운 勤務를 하는 專門技術 및 關



<表 4> 職種別 作業條件 (1)

	專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및 事務 關聯職		販賣 및 서비스職		生産 및 技能職		單純製造 및 勞務職		其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1日 勤勞時間*</b>														
8時間 以上	35	42.2	246	35.7	159	20.4	1,200	36.7	196	37.0	425	34.5	2,261	34.3
9~10時間	32	38.6	383	55.5	373	47.6	1,207	36.8	201	37.9	457	37.0	2,653	40.2
11~12時間	12	14.5	56	8.1	152	19.4	808	24.6	114	21.5	318	25.8	1,460	22.1
13時間 以上	4	4.7	5	0.7	99	12.6	63	1.9	19	3.6	33	2.7	223	3.4
<b>夜間作業與否*</b>														
없다	59	70.2	590	81.4	350	40.1	1,976	58.9	282	49.3	687	52.8	3,944	57.1
가끔있다	13	15.5	109	15.0	267	30.6	707	21.1	128	22.4	300	23.1	1,524	22.0
자주있다	12	14.3	26	3.6	256	29.3	672	20.0	162	28.3	313	24.1	1,441	20.9
<b>休日有無*</b>														
없다	10	11.9	158	23.5	86	10.3	229	6.9	26	4.7	113	9.0	622	9.3
있다	74	88.1	514	76.5	747	89.7	3,071	93.1	533	95.3	1,140	91.0	6,079	90.7
<b>作業姿勢*</b>														
앉아서	28	32.9	416	57.2	371	42.4	1,646	48.8	171	29.7	602	46.0	3,234	46.6
서서 또는 굽히고	13	15.3	57	7.8	118	13.5	678	20.1	162	28.2	281	21.5	1,309	18.9
앉았다 섰다하며	44	51.8	255	35.0	385	44.1	1,049	31.1	242	42.1	426	32.5	2,401	34.5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0

\* 無應答 除外

聯職과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夜間作業을 하지 않는 勤勞者가 많은데 비하여 1日 勤勞時間이 가장 많은 販賣 및 서비스職은 夜間作業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勤勞基準法에서는 또한 '女子와 18歲未滿者의 休日勤勞를 禁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女性勤勞者의 약 10%가 休日에도 勤勞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적으로 보면 90.7%가 한 달에 한번이상은 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는 95.3%가 1번이상의 休日이 있어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反面에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休日이 없다고 응답한 勤勞者가 23.5%를 차지했고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11.9%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때 1日 勤勞時間과

夜間作業에서 비교적 規定을 잘 지키고 있는 職種에서는 오히려 休日到에 대한 規定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것이 주목된다. 女性勤勞者들의 作業姿勢를 살펴보면 앉아서 作業하는 경우가 全體의 46.6%였고 앉았다 섰다하며 作業하는 경우는 34.5%, 서서 또는 굽힌 姿勢의 作業은 18.9%였다. 職種別로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앉았다 섰다하며 作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51.8%이고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는 앉아서 作業하는 경우가 57.2%,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는 앉았다 섰다하는 作業姿勢가 44.1%로 각각 가장 많다. 또한 生産 및 技能職에서는 앉아서 作業하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는 앉았다 섰다하며 作業하는 경우가 42.1%로 역시 제일 많

다.

職種에 따른 月平均 賃金水準과 勤務年數를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最低生活費인 20萬원에도 못 미치는 月10~20萬원을 받는 勤勞者가 全體의 61.2%를 차지하고 있었고 最低生計費水準인 10萬원 이하의 賃金を 받는 勤勞者도 1.8%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勤勞現實이 低賃金일수록 長時間 勤務의 역비례 현상이 나타난다는<sup>19)</sup> 것을 생각할때 많은 女性勤勞者들의 열악한 作業條件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月10~20萬원을 받는 勤勞者의 分布가 가장 높은 職種은 生産 및 技能職으로 81.2%를 차지했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도 비교적 높아 70.7%였다. 月20~30萬원을 받는 경우

는 販賣 및 서비스職이 46.4%로 가장 높았고 月30~40萬원은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32.3%, 月40만원 以上도 同職種에서 12.3%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했다. 결국 生産 및 技能職과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低賃金現象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은 비교적 賃金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生産 및 技能職과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앞에서 살펴본 1日 勤務時間과 夜間作業與否 등의 作業條件 역시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타난 職種이며 이들 作業條件은 職業의 安定性에도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勤務年數와도 關係있을 것이다.

<表 5> 職種別 作業條件 (2)

	專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및 事務 / 管理 및 關聯職		販賣 및 서비스職		生産 및 技能職		單純製造 및 勞務職		其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賃金水準*</b>														
10萬원 以上	1	1.3	4	0.7	8	1.1	55	2.0	8	1.8	20	2.1	96	1.8
10~20萬원	30	41.3	75	12.3	122	16.7	2,146	81.2	321	70.7	634	68.1	3,328	61.3
20~30萬원	24	32.8	259	42.4	338	46.4	361	13.7	79	17.4	188	20.2	1,249	23.0
30~40萬원	17	23.3	198	32.3	171	23.5	44	1.7	20	4.4	68	7.3	518	9.5
40萬원 以上	1	1.3	75	12.3	90	12.3	38	1.4	26	5.7	21	2.3	251	4.6
<b>勤務年數*</b>														
1年 以下	18	20.7	52	7.1	157	17.6	795	23.6	131	22.9	252	19.6	1,405	20.3
1~2年	11	12.6	54	7.4	104	11.7	641	19.0	86	15.1	231	17.9	1,127	16.2
3~5年	31	35.7	172	23.6	220	24.7	1,351	40.0	197	34.5	477	37.1	2,448	35.3
6~10年	19	21.8	312	42.8	212	23.8	459	13.6	88	15.4	230	17.9	1,320	19.0
10年 以上	8	9.2	139	19.1	198	22.2	127	3.8	69	12.1	97	7.5	638	9.2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0

\* 無應答 除外

現在の 現場에 勤務한 기간은 3~5년이 全體의 35.3%로 가장 많고 다음은 1年이하로 20.3%, 6~10年은 19.0%였다. 1年이하가 가장 많은 職種은 生産 및 技能職으로 23.6%, 1~2年도 가장 많아 19.0%의 分布를 차지했다. 또한 3~5년도 40.1%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였다.

反面에 6~10年の 長期勤務를 하고 있는 경우는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가장 많아 42.8%를 차지하고 10年以上을 근무한 경우는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 22.2%를 나타내어 가장 높다. 즉,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과 販賣 및 서비스職에 勤務하고 있는 女性勤勞

者는 비교적 勤勞年數가 긴 것으로 나타나 勤勞環境이 安定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作業滿足度

女性勤勞者들의 總作業時間, 基本給料, 總受領額, 監督者, 作業環境에 대한 滿足度 그리고 이들 5個 變數를 고려한 作業滿足指數를 보면 表6과 같다.

總作業時間에 대하여 全體女性勤勞者의 34.2%가 不滿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0.5%만이

滿足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不滿인 경우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 37.0%로 가장 많고 다음은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 3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表3에서 본 바와 같이 1日 勤務時間이 긴 職種들로 滿足도와 實態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滿足도가 높은 경우는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16.5%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였고 다음은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14.0%를 보여 이들 職種의 總作業時間에

<表 6> 職種別 作業滿足度

	專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事務 및 管理/ 關聯職		販 賣 및 서 비 스 職		生 產 및 技 能 職		單 純 製 造 및 勞 務 職		其 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總作業時間滿足度*</b>														
不滿	29	33.7	205	28.1	321	37.0	1,157	34.3	204	35.8	450	34.6	2,360	34.2
보통	45	52.3	403	55.4	467	53.8	1,873	55.8	316	55.4	715	55.1	3,819	55.3
滿足	12	14.0	120	16.5	80	9.2	334	9.9	50	8.8	134	10.3	730	10.5
<b>基本給料滿足度*</b>														
不滿	50	59.5	316	44.5	269	31.7	1,831	56.1	305	55.0	617	49.1	3,388	50.4
보통	27	32.2	319	44.9	422	49.8	1,274	39.0	212	38.2	570	45.3	2,824	42.0
滿足	7	8.3	75	10.6	157	18.5	160	4.9	38	6.8	71	5.6	508	7.6
<b>總受領額滿足度*</b>														
不滿	39	47.6	270	37.8	225	26.8	1,431	44.1	235	43.0	503	40.2	2,703	40.5
보통	31	37.8	369	51.8	483	57.4	1,622	50.0	269	49.2	674	53.9	3,448	51.6
滿足	12	14.6	74	10.4	133	15.8	190	5.9	43	7.8	74	5.9	526	7.9
<b>監督者滿足度*</b>														
不滿	32	37.6	243	33.9	282	32.3	1,589	47.2	214	37.8	552	42.5	2,912	42.2
보통	40	47.1	365	51.0	460	52.8	1,509	44.8	287	50.6	620	47.8	3,281	47.5
滿足	13	15.3	108	15.1	130	14.9	268	8.0	66	11.6	126	9.7	711	10.3
<b>作業環境滿足度*</b>														
不滿	16	18.6	115	15.8	143	16.3	935	27.8	167	29.3	326	24.8	1,702	24.5
보통	37	43.0	263	36.3	357	40.7	1,682	49.9	246	43.2	609	46.5	3,194	46.1
滿足	33	38.4	347	47.9	377	43.0	752	22.3	157	27.5	376	28.7	2,042	29.4
<b>作業滿足指數*</b>														
滿足指數** I	32	40.0	225	33.4	153	22.1	1,673	54.1	268	52.3	544	46.8	2,895	46.6
滿足指數II	38	47.5	340	50.4	384	55.6	1,218	39.4	206	40.2	525	45.2	2,711	43.7
滿足指數III	10	12.5	109	16.2	154	22.3	200	6.5	38	7.5	93	8.0	604	9.7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0

\* 無應答 除外 \*\* 滿足指數 I : 不滿(5~8) 滿足指數II : 보통(9~11) 滿足指數III : 滿足(12~15)

서의 滿足程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基本給料에 대한 滿足度를 보면 全體의 50.4%가 不滿을 느끼고 있는데 反하여 오직 7.6%만이 滿足을 느끼고 있었다. 不滿인 경우 專門技術 및 關聯職이 가장 많아 59.5%였고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는 滿足한다고 한 경우가 18.5%를 나타냈다. 즉, 販賣 및 서비스職과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만족을 느끼는 勤勞者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基本給料에 상여금 및 수당과 공제액 등을 포함하여 勤勞者가 실제로 받는 賃金인 總受領額에 대해서는 40.5%가 不滿을 표시했고 7.9%가 滿足을 표했다. 不滿度가 가장 높은 職種은 專門技術 및 關聯職으로 47.6%를 보였고 生産 및 技能職에서도 44.1%의 높은 不滿度를 보였다. 反面에 基本給料에 대한 滿足度가 가장 높은 職種은 販賣 및 서비스職으로 15.8%를 차지했다. 이는 表4의 月賃金水準과 비교해 보았을 때 專門技術 및 關聯職을 제외하면 賃金水準이 높은 職種이 滿足도도 높음을 보여 준 結果라 하겠다.

作業場內 對人關係의 重要要素인 監督者에 대한 滿足度는 不滿足하다는 應答이 42.2%인데 비하여 滿足하다는 應答은 10.3%에 불과하다. 不滿度가 가장 높은 職種은 生産 및 技能職으로서 47.2%를 보이고 있으며 滿足度가 가장 높은 職種은 專門技術 및 關聯職으로 15.3%를 보이고 있다.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도 15.1%의 비교적 높은 不滿度를 보였다.

作業環境에 滿足을 느끼는 경우는 29.4%이며 不滿을 가진 勤勞者는 全體의 24.5%였다. 이를 職種別로 보면 生産 및 技能職에서는 27.8%가 不滿을 표시하고 있는 反面에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29.3%가 不滿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滿足을 느끼는 勤勞者가 가장 많은 職種으로 47.9%의 滿足度를 표시하고 있다.

앞의 5個 變數를 하나로 묶어 全體的인 作業에 대한 滿足程度를 나타낸 作業滿足指數에 대한 結果를 보면 滿足指數가 낮은 滿足指數I集團의 46.6%는 不滿이 있는 勤勞者로 해석되며 滿足指數가 높은 滿足指數III集團의 9.7%만이 滿足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不滿을 표시한 分布가 가장 높은 職種은 生産 및 技能職으로 54.1%를 보였고 다음은 單純製造 및 勞務職으로 52.3%를 나타냈다. 滿足을 느끼는 分布가 가장 높은 職種은 販賣 및 서비스職으로 22.3% 그리고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은 16.2%로 다음 順이었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본 作業條件 또는 一般의 特性이 비교적 좋은 職種이었던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과 販賣 및 서비스職은 作業에 대해서 滿足을 느끼는 程度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保健管理實態

女性勤勞者의 健康診斷, 福祉厚生施設, 生理休暇, 育兒休職의 實態는 表7에 나타난 바와 같다.

勤勞者 健康診斷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956년이며 이때는 50人 以上の 事業場에서 實施되었고 1958년에는 30人 以上에서 1964년에는 16人 以上에서 그리고 1975년에는 勤勞基準法이 改定되면서 5人 以上 事業場으로 확대 實施하고 있다. 이와같이 勤勞者의 定期健康診斷은 法으로 規定하고 實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약 10%정도의 女性勤勞者가 定期健康診斷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健康診斷을 받고 있다는 勤勞者 가운데서도 32.0%는 형식적인 健康診斷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職種別로 보면 生産 및 技能職은 健康診斷을 實施하지 않는다고 應答한 勤勞者가 他職種에 비해 가장 많은 12.0%를 보이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實施한다고 應答한 경우도 34.5%로 가장 많았다. 健康診斷을 제대로 實施한다는 경우는 販賣 및 서비스職이 가장 많아 63.1%를 차지했다.

<表 7> 職種別 健康管理實態

	專門技術 및 關聯職		行政 및 事務 管理/ 關聯職		販賣 및 서비스職		生産 및 技能職		單純製造 및 勞務職		其他		計	
	N	%	N	%	N	%	N	%	N	%	N	%	N	%
<b>健康診斷與否*</b>														
안 한다	9	10.6	44	6.1	80	9.3	397	12.0	65	11.5	169	13.4	764	11.2
형식적이다	27	31.8	246	34.0	236	27.6	1,147	34.5	152	26.9	373	29.6	2,181	32.0
한다	49	57.6	434	59.9	540	63.1	1,777	53.5	348	61.6	720	57.0	3,868	56.8
<b>福祉厚生施設與否*</b>														
안 되어있다.	42	53.9	351	52.1	278	32.5	1,574	48.2	228	41.1	604	48.2	3,077	46.1
보통	20	25.6	192	28.5	240	28.1	991	30.4	176	31.7	400	31.9	2,019	30.2
잘 되어있다	16	20.5	131	19.4	337	39.4	698	21.4	151	27.2	250	19.9	1,583	23.7
<b>生理休暇有無*</b>														
안 쓴다	60	70.6	571	81.1	588	69.5	2,427	73.6	361	64.2	887	70.6	4,894	72.5
쓴다	25	29.4	133	18.9	258	30.5	869	26.4	201	35.8	370	29.4	1,856	27.5
<b>育兒休職有無*</b>														
없다	49	64.5	355	51.5	486	67.7	2,300	75.7	355	66.4	841	73.1	4,386	70.7
있다	27	35.5	334	48.5	232	32.3	740	24.3	180	33.6	309	26.9	1,822	29.3
計	87	100.0	736	100.0	900	100.0	3,428	100.0	582	100.0	1,358	100.0	7,091	100

\* 無應答 除外

목욕탕 및 기숙사 등의 福祉厚生施設은 全體의 46.1%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3.7%만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職種別로 보면 專門技術 및 關聯職이 안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53.9%를 보였고 다음은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으로서 52.1%였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職種은 販賣 및 서비스職이 가장 많아 39.4%를 나타냈고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도 27.2%로 비교적 他職種에 비해 높은 分布를 나타냈다. 이는 앞의 健康診斷結果나 作業條件 및 一般的 特性과는 상반되는 分布로 이들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나타내준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이 福祉厚生施設은 안 되어 있었고, 나쁜 여건을 보여준 單純製造 및 勞務職은 福祉厚生施設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勤勞者가 많은 職種에서는 福祉厚生施設이 잘 되어 있어 비롯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女性勤勞者들에만 주어지고 있는 生理休暇는 全體의 72.5%가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높아 81.1%를 나타냈다. 反面에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는 35.8%,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는 30.5%가 각각 쉬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 職種이 비교적 生理休暇規定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育兒休職有無에 대해서는 全體의 70.7%가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應答하였다. 특히 生産 및 技能職에서 가장 많아 75.7%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育兒休職이 가능하다는 職種은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으로 48.5%의 가장 높은 백분율을 나타냈다. 이는 위의 生理休暇와는 반대의 경향으로 生理休暇를 지키는 職種은 育兒休職規定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

#### 가. 職種에 따른 健康狀態

勤勞者들의 呼訴症狀 및 疾病의 分類와 指數

化過程에 대해서는 앞의研究方法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다만 女性勤勞者 한 사람이 呼訴한 症狀 및 疾病과 深刻度에 따라 個人的 健康狀態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方法으로서 指數化한 內容을 檢査하고자 한다.

表 8에서는 各呼訴數別로 職種에 따른 呼訴症狀 및 疾病頻度を 分析한 것인데 個人別 呼訴症狀 및 疾病狀態는 4個까지 고려한 것이다. 아주 경미한 症狀 및 疾病群인 分類 I에 대해서 1個를 呼訴한 사람의 職種分布는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가장 많아 54.2%, 2個를 呼訴한 경우는 生産 및 技能職에서 가장 많아 46.8%, 3個를 呼訴한 경우는 行政 및 管理 혹은 事務 및 關聯職에서 50.5%로 가장 높고 4個를 呼訴한 경우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여 43.8%를 各各 나타냈다. 보통의 症狀 및 疾病群인 分類 II에서 1個를 呼訴한 사람의 分布를 보면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 가장 많아 28.1%, 2個 呼訴한 경우는 生産 및 技能職에서 29.0%, 3個 呼訴한 경우는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 23.8%를, 4個 呼訴한 경우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25.0%를 차지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症狀 및 疾病群인 分類 IV는 1個 呼訴한 경우는 單純製造 및 勞務職에서 分布가 가장 높아 7.8%를 보였고 2個 呼訴한 경우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14.3%, 3個 呼訴한 경우는 販賣 및 서비스職에서 11.2%, 4個 呼訴한 경우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에서 18.7%를 나타냈다. 즉, 各呼訴數에 따라 症狀 및 疾病의 分布가 매우 다양하고 산만하여 全體의 인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個人的 呼訴症狀 및 疾病을 個人的 症狀 및 疾病 呼訴數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指數化 方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指數化한 變數를 사용하여 分析하였다.

職種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를 利用하여 分析한 結果를 보면 表 9와 같다. 症狀 및 疾病을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경우, 즉 자기 자신이 아주 健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全體 勤勞者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가 좋지 않다는 狀況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症狀 및 疾病呼訴는 女性勤勞者 자신이 主觀的으로 판단한 結果이므로 客觀的인 健康診斷結果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어느 면에서는 본인의 呼訴하는 측면과는 반대로 健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勞動部 통계자료의 産業安全保健法 適用 對象 事業場 全體에 대하여 實施하는 一般健康診斷結果를 보면 1983年度 受診勤勞者의 3.7%, 1984年度는 3.5%<sup>20)</sup>, 1985年度<sup>21)</sup>에 4.3%가 어떤 疾病에 罹患되어 있는 즉, 健康問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勤勞者의 健康狀態에 관한 研究로는 健康診斷結果에 의한 것과 CMI나 THI같은 測定道具에 의한 것, 說問調査에 의한 것 醫務室 利用資料에 의한 것등이 있으나<sup>22)</sup> 本 研究에서는 說問調査方法을 택하였으며, 그 內容도 健康診斷의 경우는 疾病만을 對象으로 하나 本 研究는 疾病과 症狀를 모두 健康問題化한 데서 비롯된, 基準의 차이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前提로 하여 呼訴症狀 및 疾病狀態를 살펴보면, 경미한 症狀 및 疾病 혹은 個人別 症狀 및 疾病呼訴數가 적은 狀態를 나타낸 指數 I 集團은 全體의 60.1%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勤勞者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중등도의 健康問題를 呼訴하는 集團이라 생각할 수 있는 指數 II 集團은 全體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症狀 및 疾病을 呼訴하며 그 呼訴數 또한 많은 指數 III 集團은 全體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職種別로 살펴보면 指數 I 集團에는 專門技術 및 關聯職이 가장 많이 속해 있어 67.8%의 分布를, 다음으로 많은 것은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으로 65.9%의 分布를 나타내고 있었다. 指數 II 集團은 生産 및 技能職의 分布가 가장 높아 27.2%를 나타내고 있었고 指數 III 集團에서도 역시 生産 및 技能職의 分布가 가장 높아 7.1%를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인 職種別 健康狀態는 指數 I 集團에서 높은 分布를 보인 專門技術 및 關聯職과 行政 및 管理 또는 事務 및 關聯職의 女性勤勞者가 他職種에 비해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반면 指

<表 8> 職種別 呼訴症状 및 疾病頻度

	呼訴症状 및 疾病								計	
	分類 I		分類 II		分類 III		分類 IV			
	N	%	N	%	N	%	N	%	N	%
<u>1個 呼訴한 경우</u>										
專門技術 및 關聯職	19	52.8	8	22.2	8	22.2	1	2.8	36	100.0
行政 및 管理/事務關聯職	149	54.2	53	19.3	56	20.4	17	6.1	275	100.0
販賣 및/서비스職	157	47.6	68	20.6	83	25.2	22	6.6	330	100.0
生産 및 技能職	567	48.5	328	28.1	226	19.4	47	4.0	1,168	100.0
單純製造 및 勞務職	115	44.5	80	31.0	43	16.7	20	7.8	258	100.0
其 他	240	53.3	99	22.0	86	19.1	25	5.6	450	100.0
計	1,247	49.5	636	25.3	502	19.9	132	5.3	2,517	100.0
<u>2個 呼訴한 경우</u>										
專門技術 및 關聯職	15	35.7	12	28.6	9	21.4	6	14.3	42	100.0
行政 및 管理/事務關聯職	113	44.1	57	22.3	66	25.8	20	7.8	256	100.0
販賣 및/서비스職	126	41.7	78	25.7	78	25.7	21	6.9	303	100.0
生産 및 技能職	437	46.8	271	29.0	187	20.0	38	4.2	933	100.0
單純製造 및 勞務職	58	40.8	38	26.8	36	25.3	10	7.1	142	100.0
其 他	198	44.4	119	26.7	101	22.6	28	6.3	446	100.0
計	947	44.6	575	27.1	477	22.5	123	5.8	2,122	100.0
<u>3個 呼訴한 경우</u>										
專門技術 및 關聯職	6	40.0	6	40.0	3	20.0	0	—	15	100.0
行政 및 管理/事務關聯職	147	50.5	62	21.3	64	22.0	18	6.2	291	100.0
販賣 및/서비스職	73	35.4	61	29.6	49	23.8	23	11.2	206	100.0
生産 및 技能職	503	39.9	405	32.1	283	22.5	69	5.5	1,260	100.0
單純製造 및 勞務職	69	40.4	61	35.7	27	15.8	14	8.1	171	100.0
其 他	177	39.4	139	30.9	97	21.6	24	5.1	449	100.0
計	987	41.3	734	30.7	523	21.9	148	6.1	2,392	100.0
<u>4個 呼訴한 경우</u>										
專門技術 및 關聯職	7	43.8	2	12.5	4	25.0	3	18.7	16	100.0
行政 및 管理/事務關聯職	96	40.9	69	29.4	49	20.8	21	8.9	235	100.0
販賣 및/서비스職	126	38.9	95	29.4	74	22.8	29	8.9	324	100.0
生産 및 技能職	464	40.6	384	33.6	231	20.2	65	5.6	1,144	100.0
單純製造 및 勞務職	59	42.1	52	37.1	21	15.0	8	5.8	140	100.0
其 他	217	48.0	115	25.4	97	21.5	23	5.1	452	100.0
計	969	41.9	717	31.0	476	20.6	149	6.5	2,311	100.0

數II집단과 指數III集團에서 높은 分布를 차지한 單純製造 및 勞務職과 生産 및 技能職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쁜 健康狀態를 갖고 있다 하겠다. 이는 職種別 學歷分布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高學歷인 경우 비교적 좋은 조건의 職業을

얻어 健康狀態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즉, 教育程度가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sup>23)</sup>하여 高學歷의 分布가 높은 職種인 경우 健康狀態가 좋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表 9> 職種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職 種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없 음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專門技術 및 關聯職	11	12.6	59	67.8	14	16.1	3	3.4	87	100.0
行政 및 管理/事務關聯職	86	11.7	485	65.9	129	17.5	36	4.9	736	100.0
販賣 및 /서비스職	101	11.2	528	58.7	212	23.6	59	6.5	900	100.0
生産 및 技能職	253	7.4	1,999	58.3	934	27.2	242	7.1	3,428	100.0
單純製造 및 勞務職	40	6.9	382	65.6	124	21.3	36	6.2	582	100.0
其 他	158	11.6	808	59.5	323	23.8	69	5.1	1,358	100.0
計	649	9.2	4,261	60.1	1,736	24.5	445	6.3	7,091	100.0

$\chi^2=90.76$  d. f. =20  $P<0.001$

나.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狀態

女性勤勞者들의 一般的 特性인 年齡, 就業年齡, 勤勞年數, 結婚狀態 등에 따른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의 分布는 表 10과 같다.

年齡別 呼訴症狀 및 疾病狀態의 分布를 보면 가장 많은 수의 女性勤勞者들이 속해 있는 20~24歲의 경우 指數I集團에서 58.8%로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인 반면 指數III集團에서는 6.8%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40~44歲, 45~49歲의 경우 指數I集團에서 가장 높은 分布인 68.4%를 각각 나타내고 있었으며 指數III集團에서는 각각 3.9%, 3.6%의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즉, 年齡이 많아질수록 비교적 경미한 健康問題呼訴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年齡이 적어질수록 비교적 심각한 健康問題呼訴率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CMI 혹은 THI 등을 이용한 健康狀態과약의 研究에서 年齡이 적을수록 작업미

숙, 직장환경에의 부적응 등에 의해 健康問題呼訴數가 증가하는<sup>24)25)26)27)</sup> 現象과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就業年齡과도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9歲미만 혹은 20~24歲에 就業한 경우 指數I集團에 속하는 症狀 및 疾病 呼訴率이 낮은데 비해 指數II·III集團에 속하는 경우의 分布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就業年齡이 높아질수록 경미한 症狀 및 疾病 또는 호소수가 적은 指數I集團에의 分布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미성숙한 상태의 年少就業이 女性勤勞者의 健康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結婚狀態에 따른 分布를 보면 既婚의 경우 指數I集團에서 呼訴率이 높았고 未婚의 경우는 指數II·III集團에서 呼訴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未婚인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가 既婚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으나 金屬製造産業勤勞者들을 對象으로 한



<表 10> 一般의 特性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年 齡	總 數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19歲 이하	90	8.6	637	61.4	250	24.2	60	5.8	1,037	100.0
20~24歲	263	7.5	2,075	58.8	948	26.9	240	6.8	3,526	100.0
25~29歲	126	10.6	720	60.6	271	22.8	72	6.0	1,189	100.0
30~34歲	59	13.3	267	60.3	93	21.0	24	5.4	443	100.0
35~39歲	27	9.6	182	65.1	53	18.9	18	6.4	280	100.0
40~44歲	16	10.3	106	68.4	27	17.4	6	3.9	155	100.0
45~49歲	19	14.0	93	68.4	19	14.0	5	3.6	136	100.0
50歲 이상	6	9.8	40	65.6	13	21.3	2	3.3	61	100.0
計	606	9.2	4,260	60.0	1,673	24.5	427	6.3	6,827	100.0
						$x^2=89.94$		d. f. =36		$p<0.001$
<b>就業年齡</b>										
19歲 以下	331	8.1	2,429	59.0	1,083	26.2	276	6.7	4,119	100.0
20~24歲	224	9.6	1,422	60.8	547	23.4	146	6.2	2,339	100.0
25~29歲	16	16.5	63	64.9	15	15.5	3	3.1	97	100.0
30~34歲	13	9.8	99	74.4	14	10.5	7	5.3	133	100.0
35~39歲	15	12.1	80	64.5	25	20.2	4	3.2	124	100.0
40~44歲	4	10.2	29	74.4	4	10.2	2	5.2	39	100.0
45~49歲	3	21.4	9	64.3	2	14.3	0	—	14	100.0
50歲 이상	1	14.3	4	57.1	2	28.6	0	—	7	100.0
計	607	9.2	4,135	60.0	1,692	24.5	438	6.3	6,872	100.0
						$x^2=106.98$		d. f. =36		$p<0.001$
<b>結婚狀態</b>										
未婚	440	8.1	3,213	59.2	1,417	26.1	358	6.6	5,428	100.0
既婚	175	12.1	909	63.0	285	19.8	74	5.1	1,443	100.0
計	615	9.2	4,122	60.0	1,702	24.5	432	6.3	6,971	100.0
						$x^2=71.75$		d. f. =8		$p<0.001$
<b>勤務年齡</b>										
1年 미만	131	9.3	905	64.4	299	21.3	70	5.0	1,405	100.0
1~2年	85	7.5	678	60.2	284	25.2	80	7.1	1,127	100.0
3~5年	200	8.2	1,425	58.2	647	26.4	176	7.2	2,448	100.0
6~10年	122	9.2	796	60.3	329	24.9	73	5.6	1,320	100.0
10年 이상	82	12.9	374	58.5	142	22.3	40	6.3	638	100.0
計	620	8.9	4,178	60.3	1,701	24.5	439	6.3	6,938	100.0
						$x^2=84.90$		d. f. =32		$p<0.001$

研究에서는 既婚群의 健康狀態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sup>29)</sup> 이런 차이는 본 研究對象者의 就業年齡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就業年齡, 勤務年數 등의 變數가 복합작용하여 未婚에서 健康問題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勤務年數別로 살펴보면 3~5年間 勤務한 女性 勤勞者의 경우 指數I集團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반면 指數III集團에 가장 많이 分布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年 勤務한 勤勞者는 指

數III集團에의 呼訴率이 가장 낮았고 6~10年の 경우도 비교적 적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즉 1, 2年 정도의 짧은 勤務 혹은 6年이상의 長期 勤務時는 비교적 경미한 健康問題를 많이 갖은 반면 3~5年 勤務한 경우 비교적 심각한 健康문제를 呼訴하고 있는데 이는 모종함계철 근로자를 對象으로 한 研究<sup>29)</sup>나 석유화학공업단지 지역주민을 對象으로 한 研究<sup>30)</sup>에서는 취업초기와 장기근속의 경우 健康狀態가 좋지 않은 結果가 나왔던 것과는 반대의 結果라 할 수 있다.

<表 11> 勤務條件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1)

	없 음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b>1日勤務時間</b>										
8시간이하	305	11.2	1,686	61.9	586	21.5	147	5.4	2,724	100.0
9~10시간	236	8.9	1,568	59.1	680	25.6	169	6.4	2,653	100.0
11~12시간	78	5.3	863	59.1	406	27.8	113	7.8	1,460	100.0
13시간 이상	24	10.8	125	56.0	59	26.5	15	6.7	223	100.0
計	643	9.1	4,242	60.1	1,731	24.5	444	6.3	7,060	100.0
$x^2=72.05$ d. f. = 12 $p < 0.001$										
<b>夜間作業</b>										
없다	379	9.6	2,374	60.2	972	24.6	219	5.6	3,944	100.0
가끔있다	100	6.6	951	62.4	378	24.8	95	6.2	1,524	100.0
자주있다	72	5.0	875	60.7	368	25.5	126	8.8	1,441	100.0
計	551	8.0	4,200	60.8	1,718	24.8	440	6.4	6,909	100.0
$x^2=55.03$ d. f. = 8 $p < 0.001$										
<b>休日與否</b>										
있다	465	7.6	3,660	60.3	1,557	25.6	397	6.5	6,079	100.0
없다	67	10.8	402	64.6	120	19.3	33	5.3	622	100.0
計	532	7.9	4,062	60.6	1,677	25.0	430	6.4	6,701	100.0
$x^2=19.57$ d. f. = 4 $p < 0.001$										

다. 作業條件에 따른 健康狀態  
1日勤務時間, 夜間作業, 休日與否에 따른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의 分布는 表 11과 같다. 1

日勤務時間別 分布를 보면 8시간 勤務하는 女性 勤勞者의 61.9%가 指數I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11~12시간 勤務하는

勤勞者は指數II集團에 가장 많은 27.8%가, 指數III集團에서도 가장 많은 7.8%의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13時間 以上 作業하는 勤勞者は 指數II・III集團에서 높은 分布를 차지해 勤勞時間이 길어질수록 勤勞者の 健康狀態에 나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주고 있다.

夜間作業의 경우 指數I集團에는 가끔 夜間作業을 하는 女性勤勞者の 分布가 가장 높아 62.4%를 차지했고, 指數II集團에는 자주 夜間作業을 하는 女性勤勞者の 分布가 가장 높아 25.5%를 차지 하고 있으며 指數III集團 역시 자주 夜間作業하는 경우가 8.8%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밤새워 作業하는 女性勤勞者の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女性勤勞者들에 비해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의 呼訴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夜間作業이 없는 女性勤勞者の 健康狀態가 상대적으로 좋음을 알 수 있었다.

休日與否에 따른 分布를 보면 休日이 없는 경우는 指數I集團에의 呼訴率이 높은 반면 休日이 있는 경우의 勤勞者は 指數II・III集團에서 비교적 높은 呼訴率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의 결과로 休日이 없는 勤勞者數와 있는 勤勞者數間에 큰 차이가 있어 비릇된 現象이라 생각된다.

<표 12> 作業條件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2)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없 음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b>作業姿勢</b>										
앉아서 일한다	294	9.1	1,906	58.9	831	25.7	203	6.3	3,234	100.0
서서 또는 굽히고	88	6.7	831	63.5	286	21.8	104	8.0	1,309	100.0
앉았다 섰다 하며	184	7.7	1,481	61.7	600	25.0	136	5.6	2,401	100.0
計	566	8.2	4,218	60.7	1,717	24.7	443	6.4	6,944	100.0
					$x^2=25.39$		d. f. = 8		$p < 0.005$	
<b>賃金水準</b>										
10만원 이하	7	7.3	57	59.4	27	28.1	5	5.2	96	100.0
10~20만원	194	5.8	1,975	59.4	913	27.4	246	7.4	3,328	100.0
20~30만원	102	8.2	783	62.7	295	23.6	69	5.5	1,249	100.0
30~40만원	49	9.5	325	62.7	114	22.0	30	5.8	518	100.0
40만원 이상	26	10.4	149	59.4	63	25.0	13	5.2	251	100.0
計	378	6.9	3,289	60.4	1,412	25.9	363	6.8	5,442	100.0
					$x^2=36.62$		d. f. = 16		$p < 0.005$	

作業條件中 作業姿勢와 月 賃金水準에 따른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의 分布는 表 12와 같다. 앉아서 作業을 하는 女性勤勞者の 58.9%가 指數I集團에는 25.7%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서서 또는 굽히고 作業을 하는 女性勤勞者は 指數I集團에 63.5%가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으며 指數III集團에서도 8.0%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앉았다 섰다하며 作業을 하는 勤勞者の 경우는 指數III集團에서 5.6%로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즉, 作業姿勢의 경우 어떤 姿勢가 더 健康에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作業姿勢에 따라 呼訴症狀 및 疾病의 狀態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賃金水準에 따른 健康狀態를 보면 경미한 健

<표 13> 作業滿足度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없 음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b>總作業時間滿足度*</b>										
不滿	87	11.9	473	64.8	137	18.8	33	4.5	730	100.0
보통	320	8.4	2,381	62.3	913	23.9	205	5.4	3,819	100.0
滿足	151	6.4	1,338	56.7	667	28.3	204	8.6	2,360	100.0
						$x^2=84.62$	d. f. =8	$p<0.001$		
<b>基本給料滿足度*</b>										
不滿	205	6.1	1,876	55.4	1,012	29.8	295	8.7	3,388	100.0
보통	241	8.5	1,860	65.9	594	21.1	129	4.5	2,824	100.0
滿足	63	12.4	353	69.5	78	15.3	14	2.8	508	100.0
						$x^2=187.35$	d. f. =8	$p<0.001$		
<b>總受領額滿足度*</b>										
不滿	147	5.4	1,497	55.4	814	30.1	245	9.1	2,703	100.0
보통	261	7.6	2,227	64.6	781	22.7	179	5.1	3,448	100.0
滿足	69	13.1	356	67.7	85	16.2	16	3.0	526	100.0
						$x^2=162.09$	d. f. =8	$p<0.001$		
<b>監督者滿足度*</b>										
不滿	181	6.2	1,632	56.0	846	29.1	253	8.7	2,912	100.0
보통	304	9.3	2,096	63.9	723	22.0	158	4.8	3,281	100.0
滿足	91	12.8	455	64.0	136	19.1	29	4.1	711	100.0
						$x^2=140.24$	d. f. =8	$p<0.001$		
<b>作業環境滿足度*</b>										
不滿	95	5.6	908	53.3	547	32.1	152	9.0	1,702	100.0
보통	248	7.8	1,946	60.9	800	25.1	200	6.2	3,194	100.0
滿足	220	10.8	1,355	66.4	378	18.5	89	4.3	2,042	100.0
						$x^2=160.19$	d. f. =8	$p<0.001$		
<b>作業滿足指數*</b>										
滿足指數 I **	133	4.4	1,647	54.9	937	31.3	282	9.4	2,999	100.0
滿足指數 II	229	8.4	1,775	65.5	582	21.5	125	4.6	2,711	100.0
滿足指數 III	67	11.1	433	71.7	87	14.4	17	2.8	604	100.0
						$x^2=1321.02$	d. f. =140	$p<0.001$		
計	576	3.3	4,209	60.7	1,725	24.8	442	6.2	6,938	100.0

\* 無應答 除外 \*\* 滿足指數 I : 不滿(5~8) 滿足指數 : 보통(9~11) 滿足指數 III : 滿足(12~15)

康問題集團인 指數 I 集團에서는 月20~30萬원, 月30~40萬원 받는 경우가 각각 62.7%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였고 中等도의 健康問題를 호소한 指數 II 集團에서는 月10萬원 以下가 28.1%로, 月10~20萬원이 27.4%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였으며 指數 III 集團에서는 月10~20萬원이 7.4%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賃金水準이 낮을수록 健康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作業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

總受領額, 總作業時間, 基本給料, 監督者 그리고 作業環境에 따른 心理的 條件인 滿足도의 分布는 表 13과 같다.

作業滿足도는 직업성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성심장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이 作業滿足도가 健康狀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作業에 관련된 5개 變數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모두 합한 作業滿足 指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總作業時間에 대하여 滿足하게 생각하는 女性 勤勞者는 경미한 健康問題를 지닌 指數 I 集團에서 56.7%로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인 반면 심각한 健康問題를 지닌 指數 III 集團에서 8.6%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였다. 또한 不滿이라 생각하는 女性 勤勞者의 경우는 指數 I 集團에서 64.8%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고 中等도의 健康問題를 지닌 指數 II 集團과 심각한 健康問題를 지닌 指數 III 集團에서는 각각 18.8%, 4.5%로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心理的으로 滿足을 느끼는 경우 健康狀態가 더 좋을 것이라는 一般的인 견해와는 반대의 현상으로 勤勞者들의 總作業時間에의 滿足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基本給料에 대해 滿足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의 69.5%가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하여 指數 I 集團에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각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勤勞者는 2.8%로 指數 III 集團에서 가장 낮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不滿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는 指數 I 集團에의 呼訴率이 55.4%로 나타났고 指數 III 集團

에의 呼訴率은 8.7%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즉, 基本給料에 滿足을 느끼는 勤勞者의 경우 그렇지 않은 勤勞者에 비해 健康狀態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總受領額에 대한 생각도 基本給料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으로 滿足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의 67.7%가 指數 I 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고 不滿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의 9.1%가 指數 III 集團에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總受領額에 대해서도 滿足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의 健康狀態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감독자에 대해 滿足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는 64.0%가 指數 I 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였고 指數 III 集團에서는 3.8%로 가장 낮은 分布를 보였다. 또한 不滿스럽게 생각하는 女性 勤勞者는 56.0%가 指數 I 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보였다. 감독자에 대한 滿足정도도 健康에 영향을 미쳐 滿足을 느끼는 경우가 비교적 경미한 健康問題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勤勞者 자신이 느끼는, 作業環境에 대한 생각에 따른 症狀 및 疾病에의 呼訴狀態를 보면 역시 위의 變數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滿足하는 女性 勤勞者의 66.4%가 指數 I 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며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하고 있으며 不滿이라 생각하는 女性 勤勞者의 9.0%가 指數 III 集團에 속해 가장 높은 分布로 심각한 健康問題를 呼訴하고 있었다.

결국 總作業時間을 제외한 나머지 變數들에서 不滿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의 健康狀態가 비교적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作業에 대한 滿足程度에 따라 健康狀態를 알기 위해 5개 變數를 하나로 합하여 指數化한 作業滿足指數別 症狀 및 疾病呼訴狀態는 다음과 같다. 滿足指數 I 에 속하는 즉 不滿을 느끼는 女性 勤勞者들은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指數 I 集團에 54.9%의 가장 낮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고 中等도의 健康問題를 呼訴한 指數 II 集團에 31.3%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하였고 심각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指數 III 集團에서도 9.4%로 가장 높은 分布를 차지했다. 반면 滿足指數가 III인 滿

足を 느끼는 女性勤勞者の 경우는 指數I集團의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경우가 가장 많아 71.7%를 차지하고 있었고 指數II集團의 중등도의 健康問題와 指數III集團의 심각한 健康問題에의 呼訴率은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作業에 대하여 滿足을 느낄수록 健康에 좋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 保健管理實態에 따른 健康狀態

生理休暇, 育兒休職, 健康診斷, 福祉厚生施設 等の 保健管理實態에 따른 症狀 및 疾病의 呼訴狀態를 보면 表 14와 같다.

女性의 경우 母性機能上 作業時 特別히 保護되어져야 하나 이것이 男性勤勞者와는 다른 職務를 수행토록하는 구실이 되어 차별을 제공하는 조항이 되어서는<sup>32)</sup> 않되겠다. 즉, 生理的인 차이는 존재하나 女性勤勞者에 유해하면 男性勤勞者에도 유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母性機能이 여성에의 직무 분리 또는 직종분리의 근거로 제공되어져 女性勤勞者가 母性保護를 기피하는 現象이 나타나선 안되겠다.

生理休暇에 따른 健康狀態를 보면 쉬는 경우나 쉬지 않는 경우나 그 症狀 및 疾病의 呼訴狀

<표 14> 保健管理實態別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없 음		呼訴症狀 및 疾病指數						計		
			지수 I 집단		지수 II 집단		지수 III 집단				
	N	%	N	%	N	%	N	%	N	%	
<b>生理休暇</b>											
쉬지 않는다	292	8.0	2,203	60.7	910	25.1	226	6.2	3,631	100.0	
한다	264	8.1	1,965	60.6	803	24.8	209	6.5	3,241	100.0	
計	556	8.1	4,168	60.7	1,713	24.9	435	6.3	6,872	100.0	
					$x^2=0.89$			$d.f.=4$			$p>0.05$
<b>育兒休職</b>											
있다	159	8.7	1,115	61.2	438	24.0	110	6.1	1,822	100.0	
없다	267	6.1	2,661	60.7	1,150	26.2	308	7.0	4,386	100.0	
計	426	6.9	3,776	60.8	1,588	25.6	418	6.7	6,208	100.0	
					$x^2=17.86$			$d.f.=4$			$p<0.01$
<b>健康診斷</b>											
안한다	32	4.2	491	64.3	182	23.8	59	7.7	764	100.0	
형식적이다	110	5.1	1,187	54.4	690	31.6	194	8.9	2,181	100.0	
한다	365	9.4	2,492	64.4	822	21.3	189	4.9	3,868	100.0	
計	507	7.4	4,170	61.2	1,694	24.9	442	6.5	6,813	100.0	
					$x^2=177.73$			$d.f.=8$			$p<0.001$
<b>福祉厚生施設</b>											
전혀없다	214	7.0	1,756	57.1	878	28.5	229	7.4	3,077	100.0	
보통	161	8.0	1,251	62.0	481	23.8	126	6.2	2,019	100.0	
잘되어있다	151	9.5	1,039	65.7	319	20.2	74	4.6	1,583	100.0	
計	526	7.9	4,046	60.6	1,678	25.1	429	6.4	6,679	100.0	
					$x^2=66.55$			$d.f.=8$			$p<0.001$

態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女性勤勞者 自身の 복합 要因이 작용한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育兒休職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育兒休職이 있는 경우는 指數I集團에의 症狀 및 疾病 呼訴率이 61.2%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指數II·III集團에서도 역시 없는 경우보다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즉 育兒休職이 있는 경우가 健康狀態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健康診斷의 경우는 의학적 감시 機能이 있으므로 勤勞者들의 健康問題를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結果가 個人의 사생활보장의 측면과 이것이 勤務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으므로<sup>33)</sup> 일부 勤勞者의 경우 자신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實施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健康狀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勤勞者인 指數I集團에서는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인 반면 안하거나 하는 경우 모두 비슷한 分布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深刻한 健康問題를 지닌 指數III集團에서는 형식적으로 實施한 女性勤勞者의 비율이 가장 높아 8.9%를 보이고 있으며 實施하지 않는 勤勞者도 7.7%로 비교적 높은 分布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健康診斷의 實施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형식적인 實施은 오히려 健康狀態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하겠다.

기숙사·목욕시설 등이 福祉厚生施設에 따른 健康狀態를 보면 이런 施設이 전혀없는 곳에서 作業하는 女性勤勞者의 경우 57.1%가 指數I集團에 속해 가장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指數III集團에서는 가장 높은 分布인 7.4%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施設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 경미한 健康問題를 呼訴한 指數I集團에서 가장 높은 分布인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指數III集團에서는 가장 낮은 分布인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福祉厚生施設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作業하는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가 비교적 좋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健康管理가 잘 실시되는 것이 健康狀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 V. 總括 및 結論

女性勤勞者들의 健康狀態는 그들이 처한 勤勞環境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勤勞環境과 女性勤勞者의 健康狀態와의 관계를 究明하기 위하여 本研究를 實施하였다.

資料는 1987年 10月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조직여성근로자의 실태조사 보고서」 資料이며 分析對象者는 7,091名이다.

本研究에 사용된 變數는 一般的 特性인 年齡, 就業年齡, 結婚狀態, 勤勞年數의 4개 變數, 作業條件인 勤勞時間, 賃金水準, 夜間作業, 休日, 作業姿勢의 5개 變數, 作業滿足度인 監督者에 대한 滿足度, 總作業時間에 대한 滿足度, 總受領額에 대한 滿足度, 基本給料에 대한 滿足度, 作業環境에 대한 滿足度 또 作業滿足指數화한 變數의 6개 變數, 保健管理實態인 健康診斷, 福祉厚生施設, 生理休暇, 育兒休職의 4개 變數 그리고 職種을 變數로 選定하여 健康狀態를 살펴 보았다. 이들 變數들은  $\chi^2$ 檢定을 통해 그 유의성을 알아보았는데 生理休暇를 제외한 모든 變數들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職種에 따른 健康狀態

生産 및 技能職은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率이 가장 높아 7.1%를 나타냈고 중등도의 症狀 및 疾病에서도 27.2%로 가장 높았다. 반면 專門技術 및 關聯職은 症狀 및 疾病을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勤勞者가 12.6%, 경미한 症狀 및 疾病을 呼訴한 勤勞者는 67.8%로 비교적 좋은 健康狀態를 지닌것으로 나타났다.

### 2.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狀態

年齡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는 20~24歲가 가장 많아 6.8%, 중등도의 症狀 및 疾病에 대해서도 20~24歲가 26.9%였고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해서는 40~44歲와 45~49歲가 各各 68.4%로

20~24歲群의 健康狀態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就業年齡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심각한 健康問題를 가장 많이 呼訴한 경우는 19歲以下에 就業한 勤勞者들로 6.7%이고 중등도의 健康問題에 대해서는 50歲이상에 就業한 勤勞者의 28.6%, 경미한 健康問題에 대하여는 30~34歲와 40~44歲에 就業한 勤勞者의 74.4%가 呼訴한 것으로 나타나 19歲以下의 就業이 女性勤勞者의 健康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狀態에 따라 健康狀態를 보면 未婚인 勤勞者가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해 높은 呼訴率로 6.6%, 중등도의 症狀 및 疾病에 대해서도 26.1%로 높은 呼訴率을 보였다. 반면 既婚인 勤勞者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해 높은 呼訴率을 보여 63.0%이다.

勤勞年數에 따른 健康狀態를 보면 3~5年 勤務한 勤勞者의 7.2%가 健康問題가 심각하다고 呼訴하였고 26.4%는 健康問題가 중간정도라고 呼訴하였다. 1年미만 勤務한 勤勞者의 64.4%는 경미한 健康問題를 가지고 있다고 呼訴하여 3~5年정도 勤務한 勤勞者의 健康이 나쁘게 나타났다.

### 3. 作業條件에 따른 健康狀態

1日 勤務時間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심각한 健康問題를 가장 많이 呼訴한 勤勞者는 1日 11~12時間 勤務하는 경우로 7.8%, 중등도의 健康問題 역시 1日 11~12時間 勤務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아, 27.8%이다. 경미한 健康問題를 갖고 있는 勤勞者는 8時間以下 勤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61.9%였다. 또한 症狀 및 疾病을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勤勞者도 8時間以下 勤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勤勞時間이 길수록 健康狀態가 나빠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夜間作業與否에 따라 健康狀態는 夜間作業이 자주 있는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를 가장 많이 呼訴하여 8.8%, 가끔 있는 勤勞者는 경미한 健康問題를 62.5%가 呼訴하고 있었으며 夜間作業이 없는 勤勞者는 症狀 및 疾病을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경우가 9.6%로 가장 많았다. 夜間

作業이 健康에 나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休日與否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休日이 있는 勤勞者가 심각한 健康問題를 休日이 없는 勤勞者에 비해 더 많이 呼訴하고 있었다. 또 경미한 健康問題에 대하여는 休日이 없는 勤勞者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作業姿勢에 따른 分布를 보면 서서 또는 굽힌 姿勢로 作業하는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에 대해 8.0%의 呼訴率을 보였고 경미한 健康問題에 대해서는 63.5%의 呼訴率을 보였다.

賃金水準에 따른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月平均 10~20萬원을 받는 勤勞者가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서 높은 呼訴率을 보였고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서는 30~40萬원이, 40萬원 이상을 받는 勤勞者는 症狀 및 疾病을 하나도 呼訴하지 않은 경우 높은 分布를 보여 賃金を 많이 받을 수록 健康이 좋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 4. 作業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

總受領客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總作業時間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滿足하는 勤勞者는 심각한 症狀 및 疾病 呼訴率이 가장 높았고 不滿足하다는 勤勞者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率이 높았다.

基本給料에 대한 滿足도에 따라 健康狀態를 살펴보면 滿足하는 勤勞者는 경미한 健康問題에 대해 높은 呼訴率을 보인 반면 不滿足하다는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에 대해 높은 呼訴率을 보였다. 總受領額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는 不滿足이라는 勤勞者는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고 滿足한다는 勤勞者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다.

監督者에의 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는 不滿足이라는 勤勞者는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고 滿足한다는 勤勞者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다.

作業環境滿足도에 따른 健康狀態는 不滿足이라는 勤勞者는 심각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고 滿足한다는 勤勞者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가 많았다.

作業滿足指數 結果에 따른 健康狀態는 不滿足을



의미하는 指數集團의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 호소가 많았고 滿足을 의미하는 指數集團의 勤勞者는 경미한 健康問題呼訴가 많았다. 이상에 언급한 結果로 보아 作業에 대해 심리적 滿足을 느끼는 것이 勤勞者의 健康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保健管理實態에 따른 健康狀態

生理休暇與否에 따른 健康狀態는 쉬는 勤勞者와 쉬지 않는 勤勞者들 間에 別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育兒休職有無에 따른 健康狀態는 없는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에 대한 呼訴가 많았고 있는 事業場에서 勤務하는 경우는 경미한 健康問題에 대한 呼訴가 많았다.

健康診斷實施與否에 따른 健康狀態는 형식적인 檢사를 받고 있는 勤勞者는 심각한 健康問題를 많이 呼訴한 반면 제대로 된 檢사를 받고 있는 勤勞者는 경미한 健康問題를 많이 呼訴하고 있다.

福祉厚生建設與否에 따른 健康狀態는 전혀 없는 경우 심각한 症狀 미 疾病呼訴率이 높았고 잘되어 있는 경우는 경미한 症狀 및 疾病에 대한 呼訴率이 높았다.

이상의 分析結果로 볼때, 勤勞者가 처한 제한 勤勞環境이 좋은 여건일수록 勤勞者의 健康狀態가 좋게 나타났다.

### 參 考 文 獻

1.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2. Verbrugge, L. M., "Multiple Roles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 16, 1983.
3.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3.
4. Haavio-Mannila Elina, "Inequalities in Health and Gende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2 : 2 pp.141-149, 1986.
5. 이 미숙, "서울구로공단내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0 : 2, pp.151-156.
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2 : 2, 1984.
7. McDonald, A. D., J. C. McDonald, B. Armstrong, N. M. Cherry, R. Côte J. Lavoie, A. D. Nolin, D. Robert, "Fetal Death and Work in Pregnanc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5 pp.148-157, 1988.
8. Gore, W. R.,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and Physical Illness : The Effects of Fixed Roles and Nurturant Rol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 77-91, 1984.
9. 이 효재, 조형, "여성경제활동 및 취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문, 제27집.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여성근로자의 실태조사, 1988.
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여성근로자 실태조사, 1978.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여성근로자 실태조사, 1983.
13. Una, Maclean, "Women and Health in Europe ; The Scope and Limits of Epidem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5 : 4, 1985.
14. 김 소야자, "산업장 청소년 간호" 대한간호, 17 : 5, 1978.
15. 박 세일, "인력개발", 근로여성문제 세미나
16. 구 본홍,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조건이 여성근로자의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22, : 223-234, 1972.
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기준법, 1981.
1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85.
1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포지움, 한국의 의료실태, 한울, 1985.
20. 노동부, '84 노동자건강진단 분석, 1984
21. 보건연감, 보건신문사, pp.122-124, pp.133-138, 1986.

22. 김 현숙, 일개제조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의무실 이용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3. Leigh, J.P, "Education, Occupational Status, and Illness", Work and Occupations 4 : 441-456, 1982.
24. 유 병옥, "CMI에 의한 신문출판 및 인쇄업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조사." 카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20, : 325-336, 1971.
25. 윤 복상, "CMI에 의한 화학공업근로자들의 건강실태조사", 카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22 : 437-444, 1972.
26. 이 영환, 조 혜순, "THI의한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조사", 보건학논집, 35, 1983.
27. 김 준연, 조 원재, 이 종균, 김 용준, 박 회진, 김 돈균,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CMI 적용", 예방의학잡지, 5 : 1, 1972.
28. 정 경석, 금속제조산업근로자들의 건강실태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29. 이 영원, "모종합제철 근로자들의 CMI에 의한 건강실태조사", 카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29 : 1, pp.231-238, 1976.
30. 이 영세, CMI에 의한 석유화학공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31. House, J.S. "Occupational Stress and Coronary Heart Disease :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 12-27, 1974.
32. Messing, Karen, "Do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Jobs Because of Their Biological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2 : 1, 1982.
33. Gordon, Atherley, "Human Rights Versus Occupational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3 : 2, 1983.
34. 조 규상, 산업보건학, 수문사, 1979.
35. Levy, B.S. & D.H. Wegman, Occupational Health, Little Brown & Company, 1983.
36. Kalino Raija, Mostafa A, El-Batawi, Cary L. Cooper, Psychosocial Factors At Work, WHO, 1987.
37. 이 선미,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보건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Women's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Hee Jung Ha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women's health status and work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working women's health is effected on their working environment.

The data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collected from 7,091 organized women worker by survey conducted in 1987.

The independent variables chosen for analysis were job classification, working condition, women workers'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echnical experts had higher health status than other jobs. Manufacturizing workers had lower health status than other jobs.

Second, the women who were 20-24 years old, not married and started working at 19 and less year and worked during 3-5 years had lower health status than others.

Third, the women who worked bad condition were not healthy. It was bad working condition that working hour was 11-12 per day and did not have holiday and monthly wage was 100,000-200,000 won.

Fourth, the women who satisfied the job had higher health status than the women who dissatisfied the job.

Fifth, it showed high health status that the women worked the place where health was well managed.